

# 5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 30% 확대...기름 값 얼마나 내릴까

정부,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 마련 시행

현재 추세라면 인하 폭 확대해도 1900원대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류세 인하 폭을 30%까지 확대하고, 영업용 화물차 등에 경유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

현재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2000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당장 인하 폭을 적용해도 1900원대를 웃돌아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을 종전 20%에서 30%로 10%포인트(p) 추가 인하한다고 밝혔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적용하는 것

로 5월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휘발유 기준 ℓ당 164원에서 82원을 추가 인하한 총 246원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경유는 174원, 액화천연가스(LPG)는 61원 내리가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유가가 워낙 오른 터라 지난해 11월 유류세 20% 인하 정책을 처음 적용할 당시보다는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유류세 인하 조치 시행 당시 1800원대였던 휘발유 가격은 일주일 새 1600원대로 떨어지면서 인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유류세 확대 적용까지 한 달 가까이 남아 그 사이 국제 유가 변동 폭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전국 주유소 판매 가격은 지난달 16일 정점(2004.23원)을 찍었다. 보름 넘게 소폭 하락세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여전히 곳에 따라 2000원을 웃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4월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992.30원이다. 당장 유류세 30% 인하를 확대 적용해도 1900원대에 머문다. 성남 분당에서 서울 강남역까지 하루 왕복 주행거리 40km를 ℓ당 10km의 연비로 운행한다고 가정할 때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의 유류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기존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해 한 달에 1만 원을 더 절감하는 것인데 한 달 주유 금액이 20만 원을 넘어야 기대할 수 있는 효과다.

경유 가격도 휘발유에 육박하거나 앞지르거나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생계형 화물차나 버스, 연안화물선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도 지원하기로 해 인하 효과는 더 늘 전망이다.

유류세 확대 기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



는 경유 보조금은 시장가격에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뒤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이다.

4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경유 평균 가격인 ℓ당 1913.19원에서 1850원을 뺀 63.19원의 50%인 ℓ당 31.6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경유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경유 보조금이 가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시행 전까지 경유 가격 등락 폭에 따라 보조금 지원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 역시 5월부터 3개월간 30% 감면해 ℓ당 12원 절감된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나타낼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는 유종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달리 나타날 전망이다.

김재환기자

## 이케아 가격 한달 만에 또 올랐다...최대 25%

코로나 장기화 '제조비·원자재비·운송비' 상승



이케아코리아가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25% 인상했다.

이케아는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려워 지난 2월말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고 했다가 5일 밝혔다.

국내에서 가성비를 앞세워 성장한 이케아는 올해 1월초 전체 품목 가격을 평균 6% 인상했다. 이어 2월말에는 전체 품목 가격을 10% 올렸다. 주방가구, 서랍장, 침대 인테리어 가구 약 35종 품목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모든 국가가 업계에서 가장 낮은 가격 정책을 오랜 기간 유지해 오고 있으며 제품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조비·원자재비·운송비가 상승하고 우크라이나 침공 등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인하와 함께 일부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이 불가피

최익슬기자

## 코지마, 가정의달 맞아 '엘리버드 프로모션'

안마의자 등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특별 프로모션

종합 헬스케어 기업 코지마는 가정의 달을 맞아 '효도 가진' 안마의자를 합리적인 가격과 다양한 혜택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엘리버드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코지마는 내달 9일까지 자사 직영점 코지마 갤러리 논현점·마포점을 비롯한 전체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에서 '레전드 시그니처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제품을 구입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 공기청정기 사은품을 증정하는 행사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메뉴에서 '코지마 헬스케어' 친구 추가를 한 뒤 쿠폰을 발급받아 구매하면 된다. 레전드 시그니처는 GSR(Galvanic Skin Reflex·전기 피부반응) 기술을 통해 근육이 뭉친 부위를 데이터화하고 적합한 마사지 프로그램을 자동 추천해 주는 플래그십 모델이다.

롯데하이마트에서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연계 이벤트가 열린다. 오는 8~11일, 15~18일 '코지마 헬스케어' 친구 등록을 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쿠폰을 제공한다. 하이마트에서 안마의자 레전드 시그니처와 '카이저 시그니처', '마스터', '트론' 모델 구입시 최대 20만원의 롯데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고객들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도 준비했다. 매주 화·목요일 오후 8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 중인 코지마는 가정의 달을 앞두고 SSO닷컴 '썬라이브'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 변동률은 3.5%다. 이케아의 가격 변동은 가격 인상과 인하를 모두 포함한다"며 "이케아는 지난 7년간 가격을 평균적으로 내려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이슈 등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말했다.

에몬스는 가격조정에 나섰다. 기존 제품 가격은 내리고 신제품 가격은 올렸다. 전체 200여개 품목 중 절반인 100여개 품목 가격을 평균 3~4% 정도 인상했다. 합판류(PB·MDF)가 들어가는 수납장·서랍장·오장 등이 인상 제품들이다.

에몬스 관계자는 "가격 인상이 아니라 조정을 한 것이다. 기존 제품의 경우 평균 3~4%로 가격을 내렸다"며 "인건비, 물류비 등 인상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구업계의 가격 인상은 이어지고 있다. 한샘은 지난 4일부터 일부 가구 제품의 가격을 평균 4% 인상했다. 주요 품목은 침대, 소파, 책장, 식탁 등이다. 퍼시그룹의 의자 전문 브랜드 '시디즈'도 가격을 인상했다. 전체 370여개 품목 중 절반인 190여개 품목 가격을 평균 5% 올렸다. 에넥스는 5월 1일부터 주방 가구 전체 품목의 가격을 5~10%까지 인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한 특별 방송도 마련했다. 오는 18일 오후 9시부터 60분간 안마의자 신제품 '테라팜', 발마시지기 '슬릭' 등 대표 제품 9종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선보인다. 상품별로 최대 5% 즉시 할인 쿠폰과 코지제어 20대 한정 10만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코지마 마케팅부 김경호 부장은 "가정의를 달을 앞두고 부모님, 가족을 위한 선물로 안마의자를 찾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 엘리버드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합리적인 가격과 풍성한 혜택이 가득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 '가심비' 높은 선물을 미리 준비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 "아파트보다 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 91개월째 상승

코로나19·층간소음 영향에 단독주택 수요 늘어

전국 단독주택의 매매가격지수가 91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시장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기준 100.0)는 101.9로 지난 2014년 7월 마지막 달로 감소한 후 91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2월 29개월 만에 하락 반전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이다.

단독주택 공급량도 늘었다. 지난해 준공된 단독주택은 3만9017가구로 전년(3만5496가구)보다 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아파트는 약 1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 공급량은 2017년 이후 2020년까지 3년 연속으로 감소했으나 이후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량도 함께 늘어난 것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쾌적성'에 대한 니즈 증가와 아파트 층간소음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한층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지난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오프 이후 희망하는 주거 공간으로 '단독, 다가구, 전원주택, 타운하우스'가 38%를 차지해 아파트(35%)를 누르고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가장 큰 선택 이유로는 '자연친화적 환경'이 꼽혔다.

단독주택 매매 거래도 아파트에 비해 덜 경색됐다. 지난해 단독주택의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는데, 아파트는 같은 기간 약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퀀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단독주택은 아파트가격 급등으로 인한 대체재로 리모델링, 수선 등으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아파트와 면적이 같아도 실사용면적이 넓어 다양한 공간활용이 가능하다"며 "특히 친환경, 반려동물 키우기 등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어 단독형, 별첨형 등 여러 형태의 단독주택에 대한 관심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2/4분기 순천지역 제조업체 경기 전망 "연초와 비슷"

매출액(104)·설비투자(108)·공장가동여건(104) 등 세부 항목 기준치 상회

순천상공회의소는 최근 관내(순천, 구례, 보성) 60개 주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2년 2/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체감경기가 지난 분기와 비슷한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46%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2/4분기 기업경기실사지수(BSD)는 '96'으로 조사되어 기준치(10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남지역 평균 경기전망지수인 '90'보다 높게 집계되었으며 매출액(104), 설비투자(108), 공장가동여건(104) 등 세부 항목 전반적으로 기준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분기 순천지역 제조업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리스크로 '유가·원자재가 상승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30.6%)'가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 여파 지속에 따른 내수 침체(20.8%)', '국내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15.3%)'가

뒤를 이었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생산 차질'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 부담 법안 시행'이 각 9.7%를 차지하였으며, '환율변동 심화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 증가'와 '국제관계 긴장 악화에 따른 수출 애로 심화'가 5.5%로 같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가격의 상승 등으로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응답 기업의 절반이 '영업흑자는 유지 중이나 이전보다는 규모가 감소'했다고 답했으며, 29.2%의 업체는 '영업적자로 반전', 20.8%는 '특별한 영향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40.5%의 기업에서 제품가격에 비용 상승분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으며, '생산원가 절감 노력(35.1%)'과 '대체 수입원 발굴(16.2%)'로 대응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

순천상의 이흥우 회장은 "최근 차기 정부의 규제 완화와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 조성에 대한 지역 경제계의 기대치가 경기 전망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리-우 사태에 따른 생산비용 상승 등 리스크가 지역 경제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기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경제 현안으로는, 28.8%의 기업에서 '규제 완화 등 기업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이라고 답했으며 23.1%는 '노동 관련 제도 개선', '미래산업 육성'과 '국제관계 대응' 등도 각각 15.4%가 응답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기준업종 고도화 촉진(7.7%)', '탄소중립 이행 활성화(5.8%)', '인력 수급 개선(3.8%)' 등이 있었다.

순천-김승호기자

## 신세계면세점, '썬-여행가자' 프로모션...최대 80% 할인

오는 30일까지 신세계면세점 공식 온라인몰 통해 참여

신세계면세점은 해외여행 재개 분위기에 맞춰 '썬-여행가자'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프로모션은 오는 30일까지 신세계면세점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의 엔데믹 전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로 4월 들어 인천공항 1일 이용객 수가 2년 여만에 하루 2만 명을 넘어이기도 했다.

신세계면세점은 파격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럭셔리 패션 뷰티 브랜드를 포함해 위치 및

주얼리, 화장품, 전자 제품 등 총 103개 브랜드를 최대 8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이 프로모션에는 프랑스 뷰티 브랜드 '발리 1803'을 포함해, '에스티오더', '라메르' 등 코스메틱 제품들과 '태그후이어', '세이코', '스와로브스키', '폴리폴리' 등 럭셔리 워치, 주얼리 브랜드가 함께 한다.

해외여행객들의 필수템으로 꼽히는 아이템들도 준비했다. 썬소나이트 여행 캐리어와 '브라운' 휴대용 면도기, 각종 선글라스, 셀카봉 등을 할인가로 판매한다.

서선욱기자

